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I

정은주 연구위원

김경준 선임연구위원

요약¹⁾

- 글로벌 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외동포청소년을 한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자 한민족공동체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연차별로 수행된 연구로 2017년에는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수행하였음.
- 연구의 주요 방법은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와 현장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임. 재외동포청소년 설문조사는 미래인재역량, 한민족에 대한 의식 및 교류 욕구,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여 의지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음. 면접조사는 브라질·아르헨티나 및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국내 고려인 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외동포청소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음.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륙별·국가별 맞춤형 정책과제를 도출함. 남미 대륙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공통 정책과제로는 토픽 개선, 교사 연수 및 양성제도 개발, 청소년활동 및 진로시설 설치 및 건립 지원, 청소년 교육 및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이 제시되었으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동포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정책도 도출되었음.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국내 고려인 동포청소년 공통의 정책과제는 한국어·한국사 교육과 학습 지원, 교사 양성과 지원, 동포청소년 대상 활동 활성화, 청소년활동시설 제공,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한국 유학 및 취업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제안되었으며, 각 국가별 특성화 과제도 도출되었음.

1) 본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년 고유과제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I'를 발체·요약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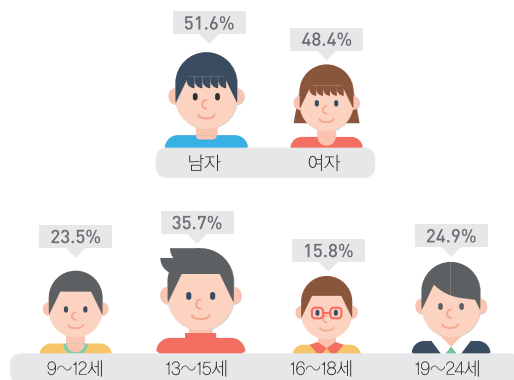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외동포청소년을 한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자 한민족공동체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 ▶ 재외동포청소년들은 동포사회의 차세대 주역으로 거주국 동포사회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과의 연계를 통하여 한민족공동체 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음. 하지만 그동안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재외동포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위한 비전과 장기적인 정책이 부재하고, 컨트롤타워를 갖추지 못한 채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부 부처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거주 국가별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음. (김경준, 김태기, 2015).
- ▶ 본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을 한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자 한민족공동체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개별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연차별로 수행된 연구로, 2015년에는 전 세계 동포사회 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방향의 설정과 정책과제의 제안을 하였으며, 2016년에는 미국과 중국동포청소년, 그리고 2017년에는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수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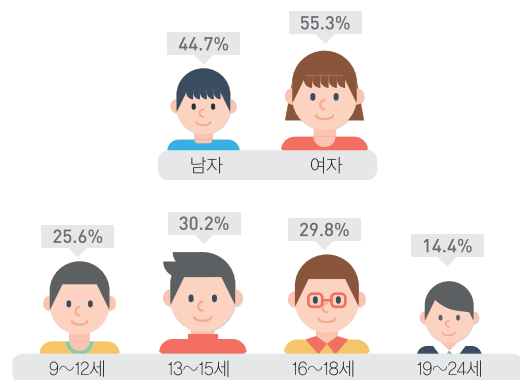
2. 연구결과

- ▶ 중남미지역 재외동포청소년 결과
 -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재외동포청소년은 브라질 221명, 아르헨티나 215명으로 총 436명이 참여함. 브라질의 남자 청소년 51.6%, 여자 청소년 48.4%, 아르헨티나의 남자 청소년은 44.7%, 여자 청소년은 55.3%로 나타남.
 -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은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에 비해서 한국학교 재학 경험뿐만 아니라 한글학교 재학 경험도 많으며,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고, 한국어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남.
 - 한민족정체성과 관련해서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은 '내가 한민족의 일원이다'라는 다소 막연한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거나 한민족의 사건이나 문제를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한민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나 실천적 행위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미래인재역량 중에서는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이 가장 높았고, 국가정체의식이 가장 낮았음. 또한 국가별로는 브라질 동포청소년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에 비해서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력,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세계시민의식은 높은 반면, 국가정체의식은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이 브라질 동포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한국문화가 매력적이라는 등의 인식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안정에 대해서는 다소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은 공통적으로 한류(한국 드라마, K-Pop 등)가 1순위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나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교육, 개인적 한국 방문 등이었음.
-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민족정체성-의식의 경우에는 미래인재역량 중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이, 한민족정체성-실천의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 및 욕구가 두 국가에 공통적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브라질 동포청소년들과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교류 및 참여 욕구, 세계시민의식은 두 국가에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그림 1] 브라질 성별·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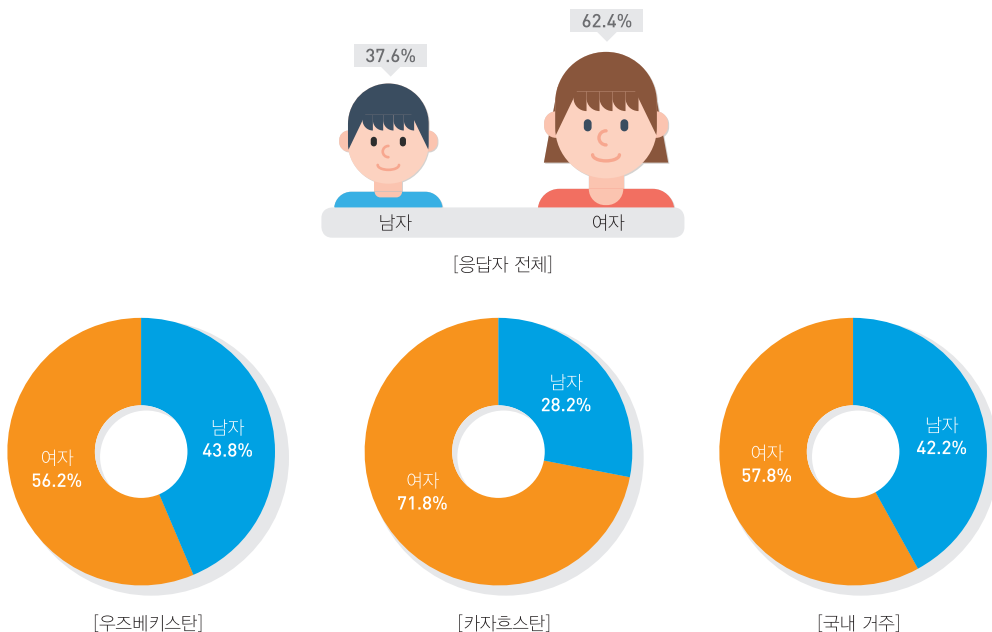
[그림 2] 아르헨티나 성별·연령별 분포

▶ 고려인 재외동포청소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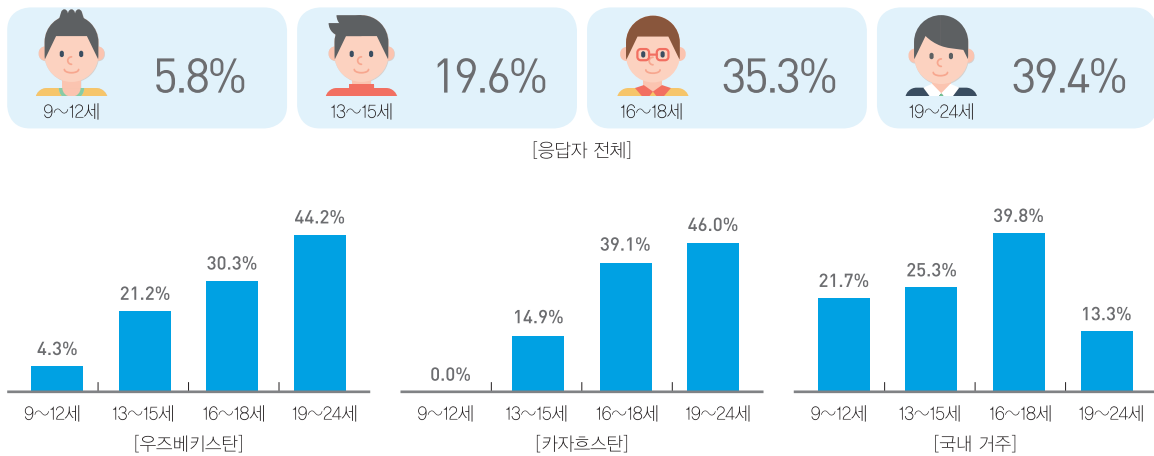
- 설문조사에는 우즈베키스탄 동포청소년 208명,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 174명, 국내 고려인 동포청소년 83명 등 전체 고려인 동포청소년 465명이 참여하였음. 남자 청소년은 37.6%, 여자 청소년은 62.4%로 여자 청소년이 설문에 더 많이 참여하였음.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15세 이하 연령그룹보다는 16세 이상 연령 그룹의 청소년이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어능력을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한국어능력보다는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어능력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흥미롭게도 가정생활과 관련한 요인의 평균 점수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평균 점수가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 점수보다 높았음.

- 한민족정체성 중 자신이 고려인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와 관련한 요인의 평균 점수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음.
- 미래인재역량 중에서는 세계시민의식의 전체 평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사소통능력이었으며 창의적사고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 한국에 관한 인식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다고 나타남.
- 고려인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주로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은 한글학교 등의 한국어 교육과 개인적 한국 방문이었으며, 고려인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서의 학업 및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공통 요인은 한국 국적이 없는 것과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 한국관련 인식, 카자흐스탄은 한국관련 교육 참여, 미래인재역량 중 책임의식,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은 한국관련 인식으로 나타남. 한민족공동체-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 한국어능력, 가정생활, 미래인재역량 중 창의적사고와 문제해결력이며, 카자흐스탄은 한국어능력, 교류 및 참여욕구, 미래인재역량 중 책임의식, 그리고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정생활, 한국관련 교육 참여, 세계시민의식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남.



[그림 3] 고려인 동포청소년 응답자의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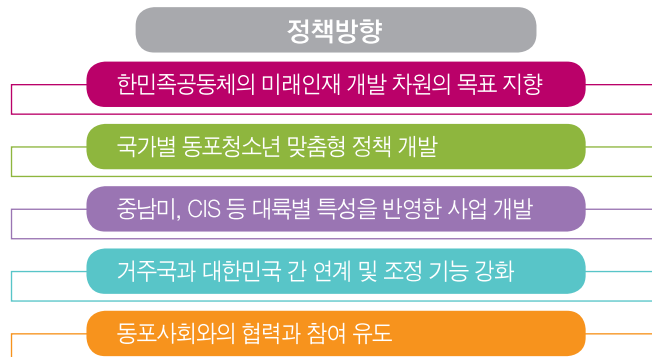


[그림 4] 고려인 동포청소년 응답자의 연령 분포

3. 정책제언

▶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방향

- 중남미 및 고려인 동포청소년은 재외동포청소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성과 더불어 개별 국가별, 그리고 대륙별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반영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즉, 중남미·CIS 동포청소년 정책은 다양한 차원에서 한민족공동체의 미래 인재를 개발한다는 목표의 지향, 국가별 동포청소년의 상황과 요구에 따른 맞춤형 정책 개발, 중남미·CIS 지역 내 국가 간에 긴밀한 협력과 공동사업의 추진, 거주국과 대한민국 간 연계 및 조정 기능 강화, 동포사회와의 협력과 참여 유도의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림 5]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방향

▶ 중남미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 중남미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공통적 정책과제는 다양한 교재 개발과 보급, 교사 연수 및 양성제도 개발, 학부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동포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체험 및 교류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활동 및 진로시설 설치·건립 지원, 동포청소년 교육 및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구분하여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표 1] 중남미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공통적 정책과제

구분	정책과제
다양한 교재 개발과 보급	• 현지 맞춤형 한글학교 교재와 교재 활용 지침서 개발·보급
	• 역사교재 및 역사·문화 내용을 반영한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 자랑스런 한민족 위인 교재 개발 및 교육 실시
	• 주니어단계의 토픽(TOPIK) 개발 및 활용도 제고
교사 연수 및 양성제도 개발	• 한글학교 교사 대상 역사·문화교육 연수 실시
	• 차세대 교사 대상의 연수프로그램 개발·지원
	• 현지 대학에 한국어과 신설 및 한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교사 양성
학부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 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동포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체험 및 교류프로그램 개발	• 한글학교연합 등 다양한 단위의 역사문화캠프 추진
	• 한민족 및 글로벌 공동체 마인드 개발 프로그램 운영
	• 주재원 자녀에 대한 모국 연수기회 부여
	• 정부초청 재외동포 장학생 선발 기회 확대
	• 동포청소년들이 흥미롭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공모전 개발
	• 진로정보 제공 및 진로상담 멘토 제공
청소년 활동 및 진로시설 설치·건립 지원	• 청소년회관 또는 청소년 문화공간 마련
	• 청소년 진로상담 및 비전센터 운영
동포청소년 교육 및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 차세대 지역 커뮤니티 조직 및 지원
	• 소규모 공동체를 위한 온라인교류네트워크 구축
	• 재외동포청소년 모국방문단 지원체계 구축
	• 한국 내 학교에서의 교육체험 기회 제공
	• 차세대 전문직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브라질 동포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과제는 1)동포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단체의 육성 지원, 2)한국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 3)지방 거주 청소년의 토픽(TOPIK) 시험 지원, 4)지방 순회 교사 연수 실시가 세부 정책과제로 도출되었음.
-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과제는 1)타문화 및 공동체 이해 등 미래인재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2)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꿈과 비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아르헨티나 한국학교와 한국 내 학교 간 교류 활성화 지원, 전문교원 자격증 취득 지원 및 현지 전문교원실습기관 설치 지원이 세부 정책과제로 도출되었음.

▶ CIS 지역 고려인 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 고려인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공통적 정책과제는 한국어·한국사 교육과 학습 지원, 교사 양성과 지원, 동포청소년 대상 활동 활성화, 청소년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한국 유학 및 취업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구분하여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표 2] 고려인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공통적 정책과제

구분	정책과제
한국어 · 한국사 교육과 학습 지원	• 시대 및 지역별 상황에 맞춘 한국어 교재 개발 · 보급
	• 역사 교재 개발 · 보급과 러시아어 번역
	• 러시아어 버전 한글 문법 교재 개발
	• 다양한 형태의 교재 개발(DVD, 인터넷, 게임 교재 등)
	• 중학교 이전 연령의 고려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사 양성과 지원	• 한국어 교사 대상 역사 · 문화 연수 실시
	• 한국어 교사 처우 개선
	• 지역 내 한국어 학과 고려인 졸업생 활용
	•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화를 위한 자격제도 지원
동포청소년 대상 활동 활성화	• 청소년 진로캠프 개발 및 운영
	• 한 뿌리 찾기-한민족공동체 캠프의 운영
	• 흥미롭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공모전과 대회 개발
	• 한국 방문 및 연수 기획 확대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고려인 청소년 단체 조직 및 지원
	• 직접 참여가 어려운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모임 망 구축
	• 한국 내 학교와 MOU 체결과 교류
한국 유학 및 취업 프로그램개발 · 운영	• 전문직 직업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진로 정보와 진로 상담 멘토 제공
	• 한국 유학과 취업 정보 제공
	• 한국 입국 준비 중인 청소년을 위한 사전 교육

- 우즈베키스탄 동포청소년 특성화 과제는 1)특성화 진로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 확대, 2)한국에 이주한 부모를 둔 청소년과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 3)현지 공립학교에 한국어 공식 교과목 채택사업 지원이 세부 정책과제로 제시되었음.
-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 특성화 과제는 1)재외국민 자녀를 위한 진학과 취업 정보 제공, 2)주재원 자녀에 대한 모국 연수 기회 부여, 3)고려인을 위한 한국어 특별 강좌 개설, 4)문화와 한국어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세부 정책과제로 제시되었음.
- 국내거주 고려인 동포청소년 특성화 과제는 1)중도입국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교재 개발, 2)원적학교와 위탁형 대안학교의 연계 강화, 3)러시아어 가능한 상담 교사 지원, 4)다양한 한국 알기 활동과 프로그램이 세부 정책과제로 제시되었음.

참고문헌

김경준, 김태기(2015), 미래인재 개발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I(연구보고서 15-R15), 세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